

무주 마을만들기 사례 '주목'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 황정수 군수 토론자로 참석 의견 제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이 "마을의 가치!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21일과 22일 수원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신설과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마을이 중심이 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설립, △마을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마을로 가는 축제 개최,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 운영, △마을 간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주도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마을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무주군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책 포럼은 마을기본법과 마을계획단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27개 자치단체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전대욱 센터장이 발제자로,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이근석 센터장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김중현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기본법에 관한 토론

(법인의 제인과 쟁점사항)에 함께 했다.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본 법안은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 지역공동체 정책의 범정부적 체계화와 중앙·지방 등 행정기관 간 연계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초부터 총 4회에 걸친 TTF회의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계획 및 정책을 비롯해 △지역공동체 위원회 및 추진체계, △지역공동체 육성 및 인적자원 양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안된 마을공동체 기본법 명칭의 적절성을 비롯해 △주민조직과 마을공동체의 관계 및 권리와 의무, △마을발전계획 수립 가능성 여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관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누가, 어떻게 측정·진단할 것인가 등 10가지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으며 황정수 무주군수(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전북권·사진)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홍실 서울 마포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촌구청장과 함께 객석



토론자로 참여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검토돼야 할 기본법과 쟁점 사항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황 군수는 "마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야한다"며 "예산확보 방안과 정부지도자 또는 지방단체장이 바뀌어도 정책방향이 일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한다"며 "도시와 농어촌 간 물적·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마을계획단 운영 서로 배움 토크와 소그룹 토의("공무원도 주민이다. 우리도 할 말 있다")에도 참여했으며 22일에는 수원화성과 수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행공동 "생태교통마을 및 화성행동", 지동 "제일교회 및 벽화골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대 완주 이전 '안돼' 군, 절대 불가 공문 발송 등 반발

전주대대(예비군)의 완주군 관내(봉동읍 소재, 106연대)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완주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완주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군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 계획이 마치 완주군과의 협의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이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분노한 주민들이 완주군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행정불신감을 키우고 군과 군민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전주군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주군은 전주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공식적인 행동을 자제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의 일방적인 추진과 악의적 언론 왜곡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절차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우선 전주시의 일방적 전주대대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완주군과 군민들의 뜻을 담은 공문을 국

방부(국방시설본부), 35사단, 106연대 및 전주시에 발송 했으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전주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전주대대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완주군민들은 전주시의 개발논리에 따른 일방통행식 전주대대 이전 추진이 계속된다면 전주시는 물론 국방부를 상대로 반대집회, 반대 서명운동, 국민권익위 제소 등 강력한 군민행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용인 농특산물 직매장 수도권 마케팅 '눈에 띄네'

외국인 대상 행사 적극 유치

장수군 용인 농산물 직매장이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장수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국내외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장수군 용인 농특산물센터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삼성전자 전세계법인장 포럼 참가자 2천여명에게 장수한우와 장수밥상으로 식사를 공급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영부인이 용인 농특산물센터를 방문해 장수에서 생산되는 각종채소와 난물을 이용한 장수밥상으로 식사를 한 후 방문 기념품으로 장수 오미자를 선물 받고 장수농특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적극적



장수한우프라자에서 중앙아프리카 영부인이 방문해 흔하게 웃고 있다.

으로 유치해 수도권 내에서 장수산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장수한우 및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유통 거점기반 구축을 위해 2010년도부터 용인 장수 한우

프라자를 오픈, 장수 한우의 소비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2015년도에 용인특산물지원센터를 오픈해 축산물뿐만 아니라 우수 농특산물 유통에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주민 민원 현장에서 해결

군민자유발언대 '나들이 완주'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완주군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정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민원발생시 주민, 기업체 등의 시간적·현실적 제약을 없애고 현장 중심의 의견청취를 위해 군민 자유발언대 '나들이 완주',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들이 완주'는 '나의 마음(말)을

들어주는 이곳, 소통1번지 완주'란 의미로, 13개 읍·면 중 벽·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각종행사시 자유발언대를 설치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형식으로 올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3월 14일 봉동읍 무관마을부터 시작된 '나들이 완주'는 현재까지 총 5개 읍·면, 10개 마을에서 진행됐다.

'나들이 완주'에서는 총 3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는데, 이중 16건이 군정에 반영, 19건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소양면 신항(마을

나들이 완주에서는 마을 안길 및 소유권 분쟁 해결은 물론, 찾아가는 보건진료 등을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대부분을 시책에 반영·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해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완주 만들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은 이달 13일 데크항공(주) 등 3개 기업체에 대한 방문이 이뤄졌다.

규제개혁팀, 기업지원팀으로 구성된 이동상담실은 기업체 관계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진행,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추진 가능한 규제개혁의 논의 등을 추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홍삼초코파이 인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본격 생산 판매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굿데이)에서는 진안군 대표 브랜드인 홍삼을 테마로 '진안홍삼초코파이'를 생산해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고 있다.

진안홍삼초코파이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진안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진안홍삼연구소가 업무 협약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지난 3월부터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 판매중인 진안홍삼초코파이는 홍삼이 2.64%나 함유되어 영양 간식으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홍삼연구소에서 품질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굿데이)은 진안홍삼초코파이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4월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한 달 매출액이 1,000만원이 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최근에는 MBC FM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인 김차동의 FM모닝쇼에 협찬광고 및 홍보를 통해 판매량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코파이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신제품 출시를 통해 근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소양 굿데이 원장은 "이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근로 장애인들의 정성, 노력이 이뤄낸 것으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제품 출시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애인·고령자들 이용 편해요

무주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홈페이지에 부여하는 것으로, 무주군 홈페이지는 대체 텍스트와 자막제공 등 사용자들 위한 사용성 보장이 잘 돼 있어 전문가심사(준수항목 22개 모두 95% 이상을 준수)와 사용자심사(전맹, 저시력, 상지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이 100% 과업수행)를 모두 통과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무주군 자치행정과 이승하 정보통신 관계자는 "홈페이지는 군정을 비롯한 생활, 문화, 관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간"이라며 "무주군 홈페이지를 누구나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 이용 환경 개선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협약체결

환경부 - SBS와 친환경 복원 파트너십 구축

진안군은 지난 20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김진원 SBS사장, 이항로 진안군수를 포함한 18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친환경 우리 마을 도량 복원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우리 마을 도량살리기 업무 협약을 SBS 목동 사옥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SBS 물은생명이다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환경부장관과 SBS 사장의 인사,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우리마을 도량 살리기'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과 클린 하우스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항로 군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국비 지원과 함께 쓰레기 3NO운동 및 클린 하우스 시범지역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3NO운동을 비롯해 청정환경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며 "환경부 차원의 예산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뮤지컬 '넌센스' 24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공연

뮤지컬 '넌센스'가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장수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공연된다.

'화끈한 수녀' '잘 노는 수녀'들의 포복절도한 개그와 풍자가 섞인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는 재기 발랄 다섯 수녀들의 배꼽 잡는 장례미 마린 프로젝트로 1991년 첫 공연을 시작한 지난 25년간 국내 공연사상 최장 기록을 달성한 최고의 히트작이다.

장수군은 2016년 '문화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넌센스'와 로맨틱 재즈 콘서트 '주현미 K-JAZZ'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이번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경찰서

장수군,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장수군은 도로과순의 주범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남원국도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 자중차구조변경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위배된 차량이다.

장수군은 단속 기간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범인인 과적차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사고예방 및 도로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마령 국도30호선 개량공사 주민설명회

진안군 마령면 국도 30호선(마령 구간) 시설개량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1일 마령면사무소 2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이장, 마령면 주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령구간(마령면 소재지 통과구간)의 경우 기존 우회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우회도로 노선으로 설계되어 마령면 지역경제 침체와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대량으로 잠식하는 등 마령면 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무풍파출소, 농번기

여성안전 치안대책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무풍파출소(소장 박법섭)에서는 21일 무풍면 자치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6월중 회의에 참석, 윤주영 주민자치위원장 등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번기 철에 증가하는 사별이 등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최근 이슈가 되는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추진 내용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 112 신고 요령 등에 관한 홍보를 하였다.

무풍파출소 박법섭 소장은 최근 여성범죄 취약장소인 주차장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주변에 "물지마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112 신고 등을 당부하기도 하였고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많은 무풍면사무소 앞 진출입로 및 무풍 4거리 신호등을 회전교차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건의 중에 있음을 홍보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산서파출소, 유관기관과 여성안심 치안대책 회의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 산서파출소는 지난 2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단 34명, 유관기관 단체장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여성안전 관련 협력치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강남역 물지마 살인사건 관련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여성안심 귀갓길 서비스 시행,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방범시설이 취약한 장소를 선정 경유하는 이동형 거점순찰, 사각지대 CCTV설치 및 기존 설치장소 재검비 등 산서면 실정에 맞고 내실 있는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김재영 파출소장은 경찰은 24시간 강력사건에 대비하고 심도 있는 가시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각 마을에서도 취약요소 등을 사전 파악하여 경찰과의 정보공유, 사각지대의 CCTV와 가로등 증설과 관리, 그리고 경찰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